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축제공간적 활용에 관한 연구

박경민 · 정욱주*

(주)한설그린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he Study for the Usage of Neighborhood Parks as a Festival Space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Park, Kyeong-Min · Jeong, Wook-Ju*

Handsel Green Co.,Ltd.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In 2011, neighborhood parks occupied a total area of 280,135,257m²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y areas and this excluded the metropolitan regions. In the rural area, the park area per person(22.64m²) is larger than the urban area(9.50m²). It is a questionable why there is a higher park ratio in the rural area compared to the cities, where the function of the neighborhood parks is not being utilized well. But, there are already a lot of parks that has been constructed in the rural areas and a lot of money is being spent in maintaining them. Hence, rather than reducing the number of "country park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se "country parks" ought to be utilized in a different manner than the parks in the city. In that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the country park usage along with the utilization of the local festivals within the parks. First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d the amount of neighborhood parks betwee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and analyzed those results. Secondly, daily newspaper article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to find the usage of the rural park which were then analyzed. Then, the extraction of the essential points in composing the festival space was carried out. Also, the general design guides of making the neighborhood parks were drawn. Last but not least, using these two resources, this study suggested design guidelines for using neighborhood parks as a Festival Space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Key words : Festival Space, Local Festival, Neighborhood Park, Park Usage, Rural Park

I. 지방 도시의 증가와 근린공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지역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면적은 91.1%(국토해양부, 2012a)에 이르고 있다.¹⁾ 즉, 오늘날 전 국토 면적 중 90%가 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으로 도시라 여겨지는 “시”의 개수도 1960년대 30개에서 2012년 총 74개로 증가하였다.

국토 대부분이 행정적으로 도시정주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결정 면적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모두 유사한 도시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비교적 최근에 승격된 시는 도시이 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승격 이전의 농촌 환경과 유사하다. 지방도시의 공원 결정면적은 대도시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다수의 공원이 활용도가 떨어지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것의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문제나 충분하지 않은 공원수요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높은 지가로 인한 과도한 토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도시계획현황」 및 내부자료, 통계청 e나

Corresponding author : Jeong, Wook-Ju

Tel : 02-880-4873

E-mail : wookju@snu.ac.kr

라지표, 2012).

지방도시 공원은 대도시의 공원과는 발생상황과 여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의 역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더라도 공원의 발생이 도시의 열악한 환경과 위생문제를 저감하고 자연풍의 여가환경 제공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현재 우리 지방도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공원이 대도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유사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같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시지역”과 “농촌환경과 유사한 도시지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도시와 차별될 수 있는 지방공원의 활용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조성방법에 대해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기 조성된 지방공원의 활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조성될 공원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지방도시공원에 관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선 공간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대都市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특정시로 결정(지방자치법 제 175조, 2013)되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15개 특정시를 제외한 지역이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²⁾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서 도시공원은 크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뉘는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2013),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좁혀 근린공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는 크게 지방도시 근린공원의 지정 및 활용현황과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계획과 설계 이슈를 도출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자료를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근린공원 결정현황을 비교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통계적 상황과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대도시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지역대표일간지(전남, 경남, 경북, 충북, 강원)의 신문기사에서 근린공원의 활용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도시 근린공원의 계획, 설계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축계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으며, 근린공원 표준설계지침을 근간으로 지방공원의 활용방안을 고려한 설계지침을 추출하였다.

III. 지방 중소도시 도시근린공원의 현황

1. 근린공원 지정현황

도시공원은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도시공원법이 조성되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대구광역시, 1995) 이후 1985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원 조성이 시행되었고(최석주외, 1996; 이정연, 2000),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서현진, 2010).

그 결과 도시공원의 수와 면적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2011년 현재 도시공원은 결정면적을 기준으로 총 19,600개소, 약 10억㎡에 이르고 있으며, 근린공원은 4,783개소, 6억㎡로 1인당 약 12㎡의 결정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근린공원 결정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2011년 도시계획현황(2012a)” 자료와 “2011년 도시계획시설현황(2012b)”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Table 1과 Table 2를 도출하였다.

Table 1에서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의 근린공원 결정면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도시의 경우 평균 도시화율은 98.3%였으며 서울과 부산은 100%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³⁾ 대도시 지역의 평균 도시인구밀도는 4,262명/㎢, 도시인구 1인당 근린공원 결정면적은 9.50㎡이었다. 울산은 25.48㎡로 대도시 평균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도시면적이 넓으며, 대형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 대도시 공원의 특징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에서는 Table 1의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을 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시화율과 도시인구밀도는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적으나 근린공원 결정 면적이 1인당 평균 22.64㎡으로 대도시의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53㎡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축제공간적 활용에 관한 연구

Table 1 대도시 도시화율과 근린공원 현황(국토해양부 2012a, 2012b; 행정안전부 2008 재구성)

행정구역명	전체인구 (명)	도시인구 (명)	도시화율 (%)	도시지역 면적 (km ²)	도시인구 밀도 (명/km ²)	근린공원면적 (m ²)	도시인구1인당 근린공원 결정면적(m ² /명)
	(A)	(B)	(B/A*100)	(C)	(B/C)	(D)	(D/B)
대도시총계	34,443,021	33,859,120	98.30	7,944	4,262	321,724,557	9.50
서울특별시	10,249,679	10,249,679	100.00	606	16,914	44,329,837	4.32
부산광역시	3,550,963	3,550,963	100.00	943	3,766	43,045,165	12.12
대구광역시	2,507,271	2,506,785	99.98	798	3,141	20,325,267	8.11
인천광역시	2,801,274	2,733,244	97.57	585	4,672	25,068,194	9.17
광주광역시	1,463,464	1,461,764	99.88	480	3,045	16,347,779	11.18
대전광역시	1,515,603	1,509,905	99.62	495	3,050	17,303,193	11.46
울산광역시	1,135,494	1,131,814	99.68	755	1,499	28,835,964	25.48
특정시(16개)	11,219,273	10,714,966	95.50	3,282	3,265	126,469,158	11.80

Table 2 중소도시 도시화율과 근린공원 현황(국토해양부 2012a, 2012b; 행정안전부 2008 재구성)

행정구역명	전체인구 (명)	도시인구 (명)	도시화율 (%)	도시지역 면적 (km ²)	도시인구 밀도 (명/km ²)	근린공원면적 (m ²)	도시인구1인당 근린공원 결정면적
	(A)	(B)	(B/A*100)	(C)	(B/C)	(D)	(D/B)
중소도시 총계	16,291,263	12,371,493	75.94	9,614	1286.82	280,135,257	22.64
경기도	4,713,390	4,058,922	86.11	1,676	2421.79	49,413,854	12.17
강원도	1,536,448	1,250,338	81.38	1,012	1235.51	28,837,156	23.06
충청북도	900,957	577,270	64.07	566	1019.91	15,125,375	26.20
충청남도	1,529,907	894,084	58.44	911	981.43	20,412,573	22.83
전라북도	1,874,031	1,476,612	78.79	890	1659.11	33,086,779	22.41
전라남도	1,268,445	697,980	55.03	1,528	456.79	37,015,347	53.03
경상북도	2,182,107	1,635,604	74.96	1,446	1131.12	44,350,026	27.12
경상남도	1,709,822	1,262,945	73.86	1,132	1115.68	42,223,092	33.43
제주도	576,156	517,738	89.86	453	1142.91	9,671,055	18.68

Table 3 지방공원의 관리실태 사례

공 원 사 례 이 미 지		공 원 특 징	
		공 원 명	함주공원
		위 치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1
관리상황		공원 내 이용객은 찾아보기 힘들었고(물놀이터에만 이용객 소수), 공원 내 농구코트는 관리가 되지 않아 바닥에 잡초가 무성하였음.	
		공 원 명	너릿재공원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관리상황		보행로와 운동시설, 벤치 주변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이용이 불가하였으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음.	
		공 원 명	고창군 근린공원(이름없음)
		위 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87
관리상황		공원 전반의 블록포장상태가 불량하였음. 시설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객도 거의 없었음.	
		공 원 명	무궁화공원
		위 치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관리상황		바닥 배수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포장면에 흙이 많이 쌓여 있었음. 시설도 양호하지 않았으며 이용객도 없었음.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도시보다 약 6배가량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도시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인데,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공원부지로 정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방 중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이용과 관리상태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⁴⁾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다수의 지방 근린공원에서 시설과 포장,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이용객들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전남 화순군의 너릿재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동선과 시설주변 등 공원전체에 잡초가 무성하여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으로 계속 지정되고 조성될 지방도시의 근린공원이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활용을 모색하고 관리방안, 재정지원방안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활용현황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대도시의 공원과 차별되는 활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방 근린공원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조사대상은 1인당 근린공원결정면적 상위 5개 지역의 일간지(전남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충북일보, 강원일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는 “근린공원”으로 하였으며 제목과 본문검색을 모두 포함하였다. 기간은 2009.1.1-2011.12.31까지 3년간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⁵⁾ 그 결과 총 3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이를 근린공원의 조성, 활용, 관리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근린공원의 조성 107건, 활용 63건, 관리는 34건으로 나타났다.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기사는 주로 공원의 신규조성, 시설의 추가, 재정비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며, 관리와 관련된 기사는 주로 시민들이 직접, 혹은 신문칼럼에서 공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활용과 관련된 기사는 크게 일시적 행사(34건), 지역축제장소(9건), 테마공원(20건)으로의 활용과 관련된 기사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도시의 공원 활용과 차별되는 현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그 세부종류와 특징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음악회, 자선바자회, 체험마당, 판매장터 등이 개최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민들이 주체가 된 공동체적 행사에 해당하였

Table 4 근린공원에 대한 지역일간지 검색결과

분류	내용	빈도수					소계		
		전남	경남	경북	충북	강원			
근린공원의 조성	신규조성	9	13	8	6	12	48		
	시민참여	0	0	0	0	5			
	시설추가 및 재정비	5	9	3	3	16		36	
	조성연기	0	0	0	0	1			
	계획수립	0	2	1	3	2			
	결정 및 용도변경	0	0	1	3	5			
근린공원의 활용	행사	교육행사	0	0	1	0	4	5	
		음악행사	1	2	1	0	1		
		장터(판매)	0	2	0	0	2		4
		체육행사	0	0	0	0	8		
		기타행사	3	3	3	3	0		
	지역축제	예술문화축제	2	0	0	0	4	6	
		관광특산축제	0	0	0	0	1		
		관광문화축제	1	0	1	0	0		
	근린공원의 테마공원화		0	7	1	0	12	20	
	근린공원의 관리	공원관리	1	3	0	0	0	4	
공원치안		0	0	0	0	2			
공원명칭지정/변경		0	1	0	2	2	5		
시민참여관리		1	0	0	0	3			
문제지적 및 제안		1	5	2	3	8			
기타	단순 언급	25	39	26	46	32	168		
총계		125	104	108	92	120	372		

Table 5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활용 특징

	행사	지역축제	테마공원화
종류	음악회, 장터, 체험마당 등	예술문화축제, 전통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 관광특산축제 (문화관광부 분류, 2007)	원주한지테마파크, 함평나비엑스포 등
특징	지역민들을 위한 공동체적, 교육적 행사	지역민과 외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상품적 축제	관광을 목적으로 한 테마공원화사업
대도시와 비교	대도시 근린공원의 활용과 유사함	지방의 수많은 축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공간 제공	축제와 연계되어 중소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적극 활용가능

다. 이는 대도시 근린공원에서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 활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축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업적 행사로서 지방 근린공원이 지니는 특징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지자체의 축제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지방 근린공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검색에서도 근린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강원 원주의 삼토문화축제(단관근린공원), 강원 원주의 원주한지축제(중앙근린공원), 전남 광양의 가야산영화축제(광영근린공원), 경북 김천의 김천부곡맛고을 음식축제(부곡근린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2012년 10월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모든 축제&행사를 조사하여 2012년 축제의개최장소를 파악한 결과, 총 2,432건 중 196건이 근린공원을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2012년 문화관광축제(문화관광부, 2012)의 경우에 한정해 보아도 총 45건 중 12건이 근린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지배적인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공원의 다원적인 기능을 감안했을 때 지방 근린공원의 주요 활용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린공원이 테마공원화는 테마공원이 근린공원용지에 신규로 조성되거나 기존 근린공원에서 발전하여 조성되고 있었다. 이는 축제의 주제와 연관되어 테마공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원주 한지축제는 현재 한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근린공원에서 발전하였다. 또한, 전남 함평군의 함평엑스포공원(함평나비축제 개최)은 화양근린공원에서 발전하였으며, 전북 무주 반딧불이환경테마공원의 경우 근린공원용지에 개최된 뒤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되어 테마공원으로 고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소결 : 지방 근린공원의 잠재적 활용

지방 근린공원의 활용이 축제적 사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층적 효율적 활용의 일환으로 근린공원

과 지역축제공간을 효과적으로 겸하는 공간조성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총 1,116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인데, 이를 4,700여개의 근린공원(국토해양부, 2012b)의 활용과 연계한다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축제 공간 조성의 측면에서 “넓은 공간의 확보”, “접근성”,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인데, 근린공원의 경우 광장과 운동 공간 등의 넓은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유동적인 축제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며, 근린거주자를 위한 공원이기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편의시설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축제에 유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도시 근린공원들의 이용과 관리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축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지방도시의 모든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라면 다원적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축제공간에 초점을 두어 축제 개최 시에 고려해야 할 공간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근린공원의 일반론적인 설계과정에 적용하여 잠재적 활용이 반영된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지역축제 수용을 위한 지방 근린공원의 공간설계방안

1. 축제공간설계의 고려사항 도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축제 수용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공간 자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에 드러난 전문가들의 공간평가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첫째, 문화관광축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며, 둘째, 일반인이 아닌 축제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지역 축제장에 관한 이슈를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게 다룰 수 있으며, 많은 표본의 취합이 가능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약 40여개에 달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방문객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축제를 방문하여 카테고리별로 축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놓았다. 이 카테고리는 크게 ‘축제프로그램’, ‘행사진행, 운영’, ‘홍보 및 안내’, ‘외국인 수용태세’, ‘쇼핑 및 음식’, ‘주민참여’ 등으로 나뉘며 ‘행사진행, 운영’부분에 행사장의 장소공간에 대한 평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2009-2011년의 최근 3년간 축제 공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유형화하여 축제 공간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도출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09~2011년의 3년간 총 424개의 공간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를 총 21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각 유형별로 빈도수를 파악해 보면 총 424개 항목 중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133개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공간조성(116개), 축제장소(62개), 동선(34개), 접근성(29개), 가설물(13개), 디자인(7개), 축제상징물(5개) 순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7개 항목이 축제공간의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42개의 기반시설(인프라)이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동선구성(34개)이 그 뒤를 이었다.

즉, 축제장 전반의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통해 공간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제에 활용될 시설물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것 보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배치와 동선의 경우에는 단점으로 지적된 항목이 33개, 26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축제 공간 조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잘 조성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근린공원이 축제지원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 비슷하기는 해도 엄연히 축제활용공간과 근린공원은 구별되는 면이 있다. 축제는 일시적이고 집중적 프로그램인 반면, 공원 활용은 일상적이고 다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제공간과 공원의 잣대는 차이가 있을 수

Table 6 근린공원별 개최 축제 수 축제공간이슈의 유형분류와 내용

유형분류		축제공간 평가빈도			내용
		장점	단점	소계	
축제장소 (62)	장소배치	6	8	14	지역 내 축제장소의 집중배치, 분산배치
	장소연계	1	6	7	분산 배치된 축제장소의 연계성
	장소성	17	7	24	축제와 관련된 장소 정체성
	일상적 활용	3	5	9	축제장의 일상적(상설)활용
	분위기조성	8	0	8	축제장 분위기 조성
공간조성 (116)	공간구획(구분)	15	10	25	축제공간의 zoning
	공간배치	24	33	57	다양한 축제공간(체험, 전시, 공연, 판매공간)의 배치
	공간연계	0	7	7	다양한 축제공간의 연계성
	공간활용	6	10	17	효율적인 축제공간의 확보와 활용
	공간규모	1	9	10	축제공간의 크기
시설 (133)	편의시설	6	15	21	화장실, 쓰레기통, 급수시설, 수유실, 미아보호센터 등
	안내시설	8	11	18	안내시설의 수와 위치(분포)
	휴게시설	10	12	21	휴식공간의 수와 규모, 그늘막과 벤치 등의 휴게시설 유무
	기반시설(인프라)	28	13	42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주차시설	13	18	31	입시 주차장의 확보, 주차공간 부족 등
접근성 (29)	접근성	14	7	21	지리적 위치, 대중교통 접근성, 자가용 접근성
	교통혼잡	1	8	8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
동선(34)	8	26	34	동선의 조성, 배치	
가설물(13)	5	7	13	몽골텐트, 부스, 천막 등의 비용적, 디자인적 비효율성	
축제상징물(5)	3	2	5	랜드마크적 요소	
디자인(7)	4	3	7	시설물, 안내현수막, 홍보판 등의 디자인	
기타(25)	15	11	25	기타 공간요소	
총계		196	228	424	-

있으며, 보편적 공원조성방식에 축제 공간 고려사항을 보완하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에 공통으로 드러난 항목은 ㉔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2. 지방 근린공원의 축제공간조성 방안

가. 근린공원 설계 지침 분석

축제공간을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의 설계 방법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경학회의 “국토해양부 승인 조정설계기준(2013)”과 토지주택공사의 “조경설계지침(2013)”을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축제지원공간과 연관되는 항목(공간, 동선, 시설물 등)을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크게 공간계획 시 고려사항과 시설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세부항목을 분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재된 항목은 ㉑, 토지주택공사 자료의 항목은 ㉒, 두 지침

나. 지방 근린공원의 축제활용을 위한 공간설계 제안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축제지원을 위한 근린공원의 계획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문광부평가 보고서에서 축제공간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린공원 설계지침에 대비하여 축제활용을 고려한 근린공원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8의 표가 도출되었는데, Table 7의 항목 중 근거가 되는 항목을 하단에 제시하였다. 각 방향은 평상시에는 근린공원으로, 축제 시에는 축제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린공원 조성방식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고려사항은 일반적인 근린공원 조성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종류이다. 하지만 근린공원의 규모나 지자체의 재정상황, 기 조성된(혹은 새로 조성될)

Table 7 축제공간조성과 연계될 수 있는 근린공원 설계 지침의 분석

분류	구분	세부항목
공간 계획시 고려사항	공간	㉑-1 장애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보존공간 배치 ㉑-2 대형 오픈스페이스(잔디밭 등)의 공간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리도록 조성 ㉒-1 각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도 고려 ㉑-2 정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 및 완충공간 등 공간특성을 구분하여 배치 ㉑-3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㉑-4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은 시설면적의 20% 이하여야 함 ㉑-5 공원 내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차로 및 주차시설 설치 ㉑-6 놀이 및 운동공간 등 소음이 우려되는 시설은 완충지대 조성, 차폐효과 조성 ㉒-1 각 단위공간은 특성에 따라 여유 및 완충공간을 조성 ㉒-2 전 연령층, 장애인 및 노약자의 다양한 이용특성 고려 ㉒-3 근린공원의 성격·입지조건·공간요구 등을 고려하여 녹지 및 유치시설을 결정
	동선	㉑-3 긴급 서비스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차동선을 분리 ㉑-4 각 단위공간은 체계적인 동선체계와 연결되어 편의성 확보
	식재	㉑-5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종을 선택 ㉑-7 공원입구·광장 등 주요공간에는 경관수를 식재 ㉑-8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은 일정거리를 띄우고 수목보호대를 사용하여 분리 ㉑-9 공원외부는 군식위주의 식재, 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수 위주로 하며 계절감 조성
시설물 계획시 고려사항	휴게시설	㉑-6 1인당 25㎡를 기준으로 하며 운동장과 같은 동적 휴게공간 적극 배치 ㉑-7 휴게공간과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 완충공간 배치 ㉑-8 휴게공간마다 시설·규모·형상을 달리함으로써 장소별 특성을 지니도록 함 ㉑-9 휴게공간은 환경교육적 효과가 높으므로 주변에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 ㉑-10 시설·보행·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공간전체 동선체계에 어울리도록 함 ㉑-10 휴게시설은 광장 및 휴게소, 산책로의 결절점에 주동선으로부터 분리되게 설치
	놀이시설	㉑-11 놀이터와 인접시설물 사이에는 폭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배치 ㉑-12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 ㉑-13 보호자가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관리시설을 주변에 배치
	운동시설	㉑-14 이용자가 다수인 시설은 단시간에 관람자를 출입시킬 수 있도록 광장을 설치 ㉑-15 운동의 종류에 따라 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 ㉑-11 운동공간은 적절한 규모로 하며 가능한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설치 ㉑-12 주변시설의 배치현황, 이용권역을 감안하여 집중,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 ㉒-4 운동장 주변에는 휴게시설과 관리시설을 배치 ㉒-5 운동공간과 인접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 확보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16 공원 전반의 관리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료의 체계화를 도모함 ㉔-17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를 사용 ㉔-18 화장실 건물은 이용자의 눈에 직접 띄지 않도록 수목 등으로 적절히 차폐 ㉔-19 울타리의 구분(~0.5m:경계표시, 0.8~1.2m:출입통제, 1.5~2.1m:침입방지) ㉔-20 울타리는 수목 및 초화류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되도록 배식 ㉔-13 울타리는 옹벽이나 자연적인 경계시설물이 있는 곳은 중복을 피해야 함 ㉔-14 공간구획이나 이용상의 필요에 따라 웬스 등의 울타리를 배치 ㉔-15 울타리의 경우 0.8~1.0m 내외로 하되 특수한 경우는 높이를 조정 ㉔-16 울타리는 투시형을 원칙으로 하며, 생울타리와 병행하여 자연미를 강조 ㉔-21 쓰레기통은 단위공간마다 1개소 이상 배치 ㉔-17 쓰레기통은 10,000㎡당 3개소를 기준으로 공원의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조정 ㉔-22 주출입구에는 입구마당 등의 전이공간을 배치 ㉔-6 출입구는 공간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부·보조출입구로 구분하여 배치 ㉔-18 주차장은 5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적정규모로 설치
안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23 지역 시설물로서의 정체성과 조형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함 ㉔-24 유도안내표지판은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 교통의 결절부, 진입부에 배치 ㉔-25 여러 안내판이 한 장소에 설치될 시에는 종합표지판·보조표지판으로 나누어 배치 ㉔-19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하고 1~2개소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 ㉔-20 위험 경고·홍보 등의 효과를 위해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설치
환경조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26 도시미관의 질적인 향상과 이용자의 미적 쾌감을 제공해 주도록 디자인 ㉔-27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어귀마당·중앙광장·휴게공간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 ㉔-28 주변 환경에 이질적인 재료나 형태는 배제 ㉔-21 입구의 인식성을 주고 특징적인 환경조형시설이 되도록 함 ㉔-22 안내판·머릿돌·홍보안내판 등을 함께 설계하여 종합시설화 하도록 함

Table 8 축제활용을 고려한 근린공원 공간계획 방향

유형분류	축제공간 조성 시 주요 고려사항	근린공원 공간계획 방향
축제 장소	장소 배치	지역 전체에 축제 분위기 조성이 주요 목적이거나 공간규모, 시설의 분산 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소가 분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제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 한 장소에 집중하여 조성해야함
	장소 연계	장소 간 분산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물리적 연결성(이동수단, 연결보행로)과 축제 프로그램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함
	장소성	환경적으로 자연환경과 축제의 소재가 연계되도록 구성하거나, 물리적으로 축제와 연관된 시설물의 도입, 축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구성을 통해 장소성을 형성해야 함
	일상적 활용	상설축제장을 운영하여 평상시에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축제 시에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분위기 조성	축제장 입구에 축제를 부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진입 초입에 주제와 관련한 부스를 배치하여 입구에서부터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축제장 전반에 축제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여 통일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
		<p>근린공원 계획 시 인접의 도시공원, 초·중·고등학교, 문화원 등의 공공용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시에 축제의 규모와 주제에 따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물리적 연계성을 확보한다.</p> <p>관련항목 : ㉔-1</p> <p>근린공원 계획 시 해당 지역축제와 관련된 시설(건축물 등)을 도입하거나 공간의 주제를 축제와 연관시켜 장소성을 형성한다. 축제를 형상화한 시설물을 디자인하거나 지역색을 살린 고유 식재수종을 활용하여 축제와 연관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p> <p>관련항목 : ㉔-3, ㉔-5, ㉔-23</p> <p>근린공원 내 건축물로 문화시설(시설면적의 20%이내 규모, 3층이내)을 계획하여 평상시에는 지역축제를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며 축제시에는 축제진행의 메인 건물이 되도록 한다.</p> <p>관련항목 : ㉔-3, ㉔-4</p> <p>근린공원 내 환경조형시설로서, 축제와 관련된 조형물을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축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축제 시에는 축제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또한 공원 내 초화류를 활용하여 시기적으로 특정 수종과 연관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p> <p>관련항목 : ㉔-9, ㉔-26-28, ㉔-21</p>

지방 중소도시 근린공원의 축제공간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간 조성	공간 구획	넓은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기능별로 군집화하며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함. 하지만 지나친 세분화는 축제의 대동성을 약화시키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내기도 함. 먹거리 공간과 노점공간은 따로 구획되는 것이 필요	근린공원 공간 조성 시,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테니스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메인공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공간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 구획방법(생울타리)을 제시한다. 이 때 되도록 1.2m 이하 높이로 구획하여 공간적으로 차폐되되 시각적으로는 반대편 공간에서 어떤 축제가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배치	축제공간은 축제의 내용과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일자형 배치는 관람객 동선을 단순화시켜 축제장에 체류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승전결형·순환형 행사장 배치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함	또한 운동시설 주변의 휴게시설과 관리시설은 시설 규모·형상을 달리하여 축제메인공간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휴게 및 안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 연계	공간의 구획이나 공간의 배치가 너무 세분화되고 이격되면 이는 자칫 각 공간이 별도의 축제공간으로 느껴지게 되며 축제의 운영과 방문객의 집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 경우에는 공간을 연결하는 하드웨어(동선, 유도사인 등)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연계)의 도입을 통해 완화시켜야 함	이들 개별 공간은 축제공간의 전체 밑그림을 고려하여 전체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순환형 축제동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관련항목 : ㉠-8, ㉠-10, ㉠-15, ㉠-19, ㉡-11, ㉡-14
	공간 활용	축제장의 유휴공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행사장은 시간대에 따라 축제를 지원하는 공간(휴식, 적재, 대기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근린공원의 각 공간에는 완충공간을 두어 축제 시 축제진행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관련항목 : ㉢-1, ㉠-7, ㉠-11, ㉢-5
	공간 규모	시장과 거리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주로 공간협소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행사공간을 이동시키거나 주변의 추가적인 축제 장소를 확보하여 연계함으로써 공간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너무 넓은 공간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도 축제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거나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관람여건을 저해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과 주 관람 대상을 고려한 공간규모를 설정해야 함	근린공원 조성 시 축제공간규모를 고려하여 유치시설과 규모를 결정하며, 전 연령층과 장애인 및 노약자의 다양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근린공원 시설확장 후보지로서 환경보존공간을 두어 축제 시에 일시적으로 공간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축제의 규모가 커졌을 시 이에 대응하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항목 : ㉠-1, ㉢-2, ㉢-3
시설	편의 시설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통, 급수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함. 화장실과 쓰레기통 등은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눈에 띄게 위치시키기보다는 차폐를 통해 가려주고 안내표지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축제메인공간으로 활용될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주변에 화장실, 쓰레기통, 급수시설을 주로 배치하며, 경관을 해치는 시설은 수목 등으로 차폐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관련항목 : ㉠-18
	안내 시설	각 동선의 결절점과 메인 행사장마다 분산배치되어야 하며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효율적으로 담겨있어야 하며 공간이 쉽게 읽혀지도록 표현되어야 함	안내시설은 Table 7의 안내시설 계획지침에 따라 설치하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축제 시 축제안내표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시에는 가설 표지판을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관련항목 : ㉠-23~25, ㉡-19~20
	휴게 시설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의 확보는 행사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임. 한 공간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것보다는 축제장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공원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기존 공원의 휴게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휴게공간은 축제메인공간으로 활용되는 운동시설과 인근에 적극 배치하되 향후 축제시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한다. (축제) 동선의 결절점에 설치하되 동선과 이격을 두어 분리되게 설치한다. 관련항목 : ㉠-6, ㉡-10
	기반 시설 인프라	축제는 일시적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광장, 편의시설, 주차시설, 휴게공간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근린공원의 활용한다면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근린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일시적 축제공간 조성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근린공원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원의 질을 높이는 상호보완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관련항목 : 연구자 제안
	주차 시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 시에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축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축제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계획하면 공간과 비용의 낭비가 되므로 이를 지양하되, 축제 시에는 인근의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주차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축제장 인근의 교통

접근성	접근성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축제 시에 주요 길목마다 안내판을 임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혼잡을 줄인다. 주차장과 축제장은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연결하며, 주요 교통 결절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관련항목 : ㉞-1, ㉠-24
	교통 혼잡	상황에 따라 축제장 인근을 통제하고 축제장 인근에 산발적으로 주차공간(학교, 공공기관)을 확보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 활용)	
동선	주 동선과 보조동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축제 공간의 위계를 세워야 하며 동선의 방해나 단절(차량통행, 시설물의 방해, 특정 공간의 동선침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근린공원 계획 시 주동선과 보조동선을 설정하여 동선의 위계를 설정하며 주·부·보조출입구와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주동선상에는 광장과 운동공간을 배치하여 축제 시에 메인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원 외곽에 보조동선을 두어 축제 시 혼잡한 곳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 또한,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은 혼잡을 줄이고 단시간에 관람자를 출입시킬 수 있도록 주변에 광장을 계획하도록 한다. 관련항목 : ㉠-3, ㉠-14, ㉡-6	
가설물	모든 축제에 활용되는 몽골텐트는 축제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해야함. 축제 주제에 맞는 디자인과 재료를 사용한 시설을 조성하여 반영구적으로 존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축제 시에는 근린공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가설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가설물이 사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종류별로 규격·형태·재료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여기서 활용되는 가설물은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관리시설(창고)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관련항목 : ㉠-16~17	
축제상징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랜드마크 크적 요소로 활용되기 위해 무조건 화려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축제의 소재에 맞도록 심플하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축제상징물은 근린공원 조성 시 조형물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Table 7의 환경조형시설 계획 지침을 따른다. 관련항목 : ㉠-26~28, ㉞-21~22	
디자인	축제장의 디자인 요소를 통일시켜 축제경관을 산만하지 않게 해야 하며 축제의 개성에 맞는 디자인을 도입해야 함	근린공원 조성 시 지역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축제장의 디자인요소로 활용 가능하도록 공원시설 디자인을 체계화한다. 관련항목 : ㉠-16, ㉠-26, ㉠-23	

공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축제의 규모와 진행특징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고, 공원주변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운동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현재 지방의 근린공원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대도시에 비해 가치가 떨어져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공원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방 근린공원의 새로운 활용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최장소로서 근린공원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집중 하였다. 지역의 특정장소와 연

계된 전통적인 축제와 달리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관광적 성격의 축제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장소를 필요로 하는 축제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의 근린공원을 연계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축제와 근린공원의 결합을 공간연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축제의 물리·공간적 특성이 근린공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축제 공간 조성비용을 근린공원의 인프라 형성에 활용하여 양자가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개최 가능한 근린공원을 유형화 하여 세부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연계되는 방법도 앞으로의 고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1)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도시지역(읍 이상) 면적은 90.1%이다 (국토교통부·LH공사, 2013).
- 주2)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인 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청주·전주·안양·천안·포항·남양주·화성·김해시가 대도시에 해당
- 주3) Table 1에서 서울과 부산은 전체인구와 도시지역 인구가 같다. 이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 타 대도시와 달리 모든 인구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함을 알 수 있다.
- 주4)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인근의 근린공원들이 높은 이용빈도를 보이며, 도시외곽에 위치한 자연공원, 광역이용성격이 강한 기념공원, 해당도시의 대표공원, 관광지에 위치한 공원에서는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도시의 공원 중 낮은 이용빈도를 보이는 경우의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의 보존가치와 사용가치를 종합한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였을 때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권 공원의 가치가 높게 산정되었다. 이는 공원의 잠재적 이용자 수, 소비자의 사용욕구, 실제 이용률, 연평균 이용횟수 등의 조합을 통해 산정한 것이므로 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원이용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에 비해하는 관리의 정도를 방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 주5) 수집된 기사 중 광주/포항/대구/울산/통합창원/김해/청주/천안/대전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117건의 기사는 제외하였다.

VI.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011년 도시계획현황”, 2012a.
2. 국토해양부, “2011년 도시계획시설현황”, 2012b.
3.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전략 정책연구”, 2011
4.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계획연혁, 1995.
5.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보고서”, 2009.
6.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보고서”, 2010.
7.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보고서”, 2011.
8.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2007.
9. 이정연, 대구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0. 최석주, 김원정, 도시공원의 발달 : 대구시를 중심

- 으로,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1996.
11. 서현진,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13. 한국조경학회, 건설교통부 승인 조경설계기준, 기문당, 2007.
 14. 한국조경학회,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13.
 15. 함평군,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요인 연구, 2009.
 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8.
 17. 강원일보, 키워드 “근린공원”, 2009. 01. 01. ~ 2011. 12.31.
 18. 경남일보, 키워드 “근린공원”, 2009. 01. 01. ~ 2011. 12.31.
 19. 경북일보, 키워드 “근린공원”, 2009. 01. 01. ~ 2011. 12.31.
 20. 전남일보, 키워드 “근린공원”, 2009. 01. 01. ~ 2011. 12.31.
 21. 충북일보, 키워드 “근린공원”, 2009. 01. 01. ~ 2011. 12.31.
 22. 국토교통부·LH, “도시지역 인구현황”, 통계청 e-나라지표, 2013.
 23.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도시계획현황 및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2012.
 24. 문화관광부, 2012문화관광축제선정목록, 2012.
 25. 토지주택공사, 설계지침(조경), 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2013.
 26. 포털사이트 네이버 2012 전국 축제&행사 캘린더, 2012.

접 수 일: (2013년 5월 12일)

수 정 일: (1차: 2013년 5월 23일, 2차: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30일)

■ 3인 익명 심사필